

# 올해도 덥고 바다는 ‘펄펄’ 끓는다

기온 평년보다 높을 확률 70%...해수면 온도 상승 전망  
강수량, 평년 수준 80%...극한·집중호우·폭염 대비 필요

올해 우리나라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뜨겁고, 바닷물 수온도 높아 ‘펄펄 끓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상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연 기후전망’을 발표했다.

기상청은 과거 관측자료에 기반해 연 기후를 예측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대기, 해양, 해빙, 지면 등 복합적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지구시스템 기후모델 기반의 기후 예측 체계를 적용했다. 급격한 기후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평균 기온은 평년(12.3도~12.7도)보다 높을 확률이 7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평년과 비슷한 확률은 30%, 낮을 확률은 0%다.

영국 기상청 연기후예측시스템에서 10개 예측 모델을 종합한 결과를 보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99%에 달했다.

기상청은 북반구 전반에 고기압성 순환이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에서 유라시아, 동아시아에 이르는 상층(약 5.5km) 중위도 지역에 고기압성 순환이 동서(東西) 방향으로 형성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

시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진다는 것이 기상청 설명이다.

또 북태평양 해수면온도는 10년 이상 주기로 평년보다 높거나 낮은 상태로 지속되는 기상 패턴을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는 저수온을 띠고 있는 점, 인도양의 해수면온도가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서 우리나라 남동쪽의 고기압 순환이 발달해 기온이 올라갈 것으로 분석했다. 대서양도 기온이 높은 채 유지되는 기상 패턴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고기압성 순환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 역시 평년(16.4~16.6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올해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80%, 비슷할 확률은 20%로 예측했다.

영국 기상청 연기후예측시스템에서도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99%로 계산했다.

특히 지난해 전 지구 해양 열용량(수심 약 2km 이내 바닷물이 보유한 총 에너지의 양)이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현재 북태평양·대서양·인도양은 물론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도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기상청 설명이다.

기상청은 북태평양의 저수온 패턴이 쿠로시오 해류의 유입을 약화시키고, 우리나라 주변 해역으로 따뜻한 해류가 많이 들어오면서 해수면 온도를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고온 현상’은 최근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평균 기온, 해수면 온도 모두 해마다 역대급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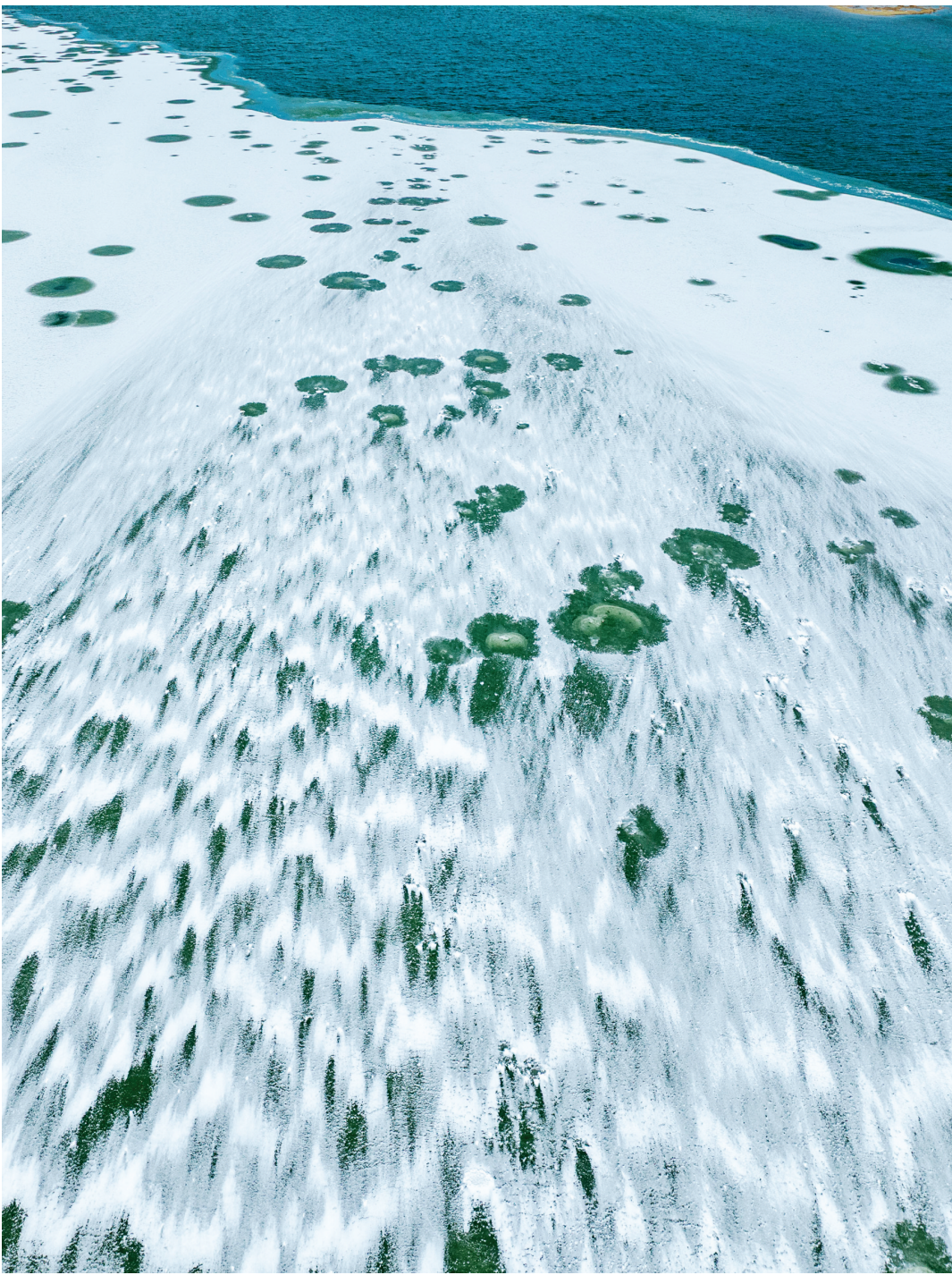
우리나라 역대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24년(14.5도)이며 2위는 2025년(13.7도), 3위는 2023년(13.7도)이다. 역대 연평균 해수면온도는 2024년(18.7도)이 가장 높았으며, 2025년(18도), 2021년(18도), 2023년(17.9도), 2022년(17.6도) 순으로 높았다.

한편 올해 강수량은 평년(1193.2~1444.0mm)과 비슷한 확률이 50%로 예측됐다. 평년보다 많을 확률은 30%다.

다만 기상청은 차고 건조한 북쪽 저기압과 북서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는 온난다습한 공기가 충돌하는 방식으로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극한 호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 기온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 폭염과 고수온에 의한 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강수량 변동성이 큰 만큼 가뭄, 집중호우 등에 의한 피해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추위가 만든 풍경 광주와 전남 전역에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진 25일 함평군 손불면 월천저수지가 얼어 붙으면서 추상화 같은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강진 청자축제, ‘학폭 논란’ 가수 초대 논란 아침 영하권 강추위 지속

고액 출연료·공유지 재매입 등  
무분별 예산 편성에 비판 잇따라  
군, 반발 여론에 출연 재검토기로

강진군이 제 54회 청자축제(2월 21일~3월 2일) 기간에 ‘학폭 논란’을 일으켰던 트로트 가수 황영웅 씨를 섭외, 공연을 진행하기로 해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강진군이 ‘학폭 논란’을 받고 있는 가수에게 고액의 출연료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산 집행의 적절성 논란도 제기되는 형편이다.

강진군이 18년 전 민간에 매각했던 공유지를 수십 배 웃돈을 주고 되산 행태(광주일보 2025년 12월 29일 7면)와 맞물려 강진군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강진군 등에 따르면 군은 제 54회 강진청자

축제 기간인 2월 28일 ‘청자의 소리 콘서트’ 행사를 열고 초대가수로 황영웅을 초대하기로 했다가 반발 여론이 잇따르면서 재검토기로 입장을 바꿨다.

제 54회 강진청자축제는 오는 2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총 10일 간 강진군 청자촌 일대에서 펼쳐진다. 축제 예산으로는 14억원이 편성된 상태다.

강진군은 축제 기간 마련된 세부 행사인 ‘청자의 소리 콘서트’에 출연할 ‘공연별 주요 출연 가수’ 명단에 황영웅을 포함한 6명을 선정했다. 황씨의 출연 예정일은 오는 2월 28일로, 황씨 소속사측도 최근 팬카페를 통해 “2월 마지막 주말에 첫 행사이니 힘찬 응원을 해달라”는 공지를 올린 바 있다. 황씨 출연료로 수천만원이 거론되고 있다.

황씨는 팬클럽 수가 6만1851명에 달하는 인기 트로트 가수지만 동급생을 상대로 금품 갈취 및 폭행을 했다는 등 학교폭력 의혹과 데이터 폭력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관련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상태다.

이 때문에 황씨의 출연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진군 홈페이지와 SNS 등지에는 지역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가수를 섭외한 데 따른 비판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축제 추진위원회의가 26일 최종 의견을 수렴해 출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

광주·전남 지역에서 당분간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 평년(영하6~영하1도, 최고 3~7도) 기온보다 낮은 추위가 이어지겠다고 25일 예보했다.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8~영하3도, 낮 최고기온은 1~8도를 보이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3~1도에 머무르다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8~영하2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 분포하겠다. 29일도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8~영하2도까지 떨어지겠다.

화요일인 27일 새벽(0시~6시)부터 오전(6시~9시) 사이에는 광주와 전남서부 지역에 1cm 안팎의 눈이 내릴 전망이다. 전남동부 지역에도 0.1cm 미만의 눈발이 날릴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여수 등 전남동부남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기온이 낮아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며 “전남 동부 해안 지역에서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산불 등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 고로쇠의 계절...전남 수액 채취 시작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양 백운산, 구례 지리산 등을 중심으로 9개 시·군 505개 농가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에 들어간다.

올해는 6885ha에 걸쳐 있는 10만 8000그루의 고로쇠 나무에서 160만 3000ℓ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약 20% 늘어난 규모다.

고로쇠 수액은 밤 최저기온이 영하 2.1도 이하에서 낮 최고기온이 10.6도 이하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가 나야 채취할 수 있는데,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 기온 등으로 채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도는 3월까지 생산되는 고로쇠 수액 채취를 통해 농가당 120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104개 농가가 226ha에 걸쳐 채취하는 고로쇠 수액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를 통해 직불금을 지원받게 돼 2억 4800만원의 별도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고로쇠 수액은 한 통(18ℓ)당 5만~7만원 수준이다. 소비자 기호에 맞게 다양한 규격(0.5ℓ~18리터)으로 판매된다. 판매는 ▲순천 농협 서면지점 ▲광양 백운산 고로쇠약수영농조합법인 ▲담양 산심영농조합법인 ▲구례 고로쇠영농조합 ▲장성 남창고로쇠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이뤄진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74

광주일보 74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sup>+</sup>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sup>+</sup>입니다.

믿음이 있는 대학·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2026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〇〇
		성경연구학과(Th.M.)	〇
		신학과(Ph.D.)	〇
		성경연구학과(Th.D.)	〇
		사회복지학과(D.S.W.)	〇
일반대학원	박사	코칭심리학과(D.Psy.)	〇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〇
		심리디지털융합학과(D.Psy.)	〇
		유아교육학과(M.Ed.)	〇
		상담심리치료학과(M.A.)	〇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가족상담청소년학과(M.A.)	〇
		코칭심리학과(M.Psy.)	〇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M.A.)	〇
		재활심리치료학과(M.A.)	〇
		사회복지학과(M.S.W.)	〇〇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〇〇
		한국어교육학과(M.Ed.)	〇
국제대학원	석사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〇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〇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6. 1. 20.(화) ~ 27.(화)

·전 형 일: 2026. 1. 29.(목)

신학대학원 편입생 모집

▶ 모집학과: 신학과(M.Div.)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 2학년 모집인원 0명  
지원자격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 3학년 모집인원 0명  
지원자격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학부 편입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원외
		일반편입(3학년)	학사편입(3학년)
인문	신 학 과	〇〇	〇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〇〇	〇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6. 1. 28.(수) ~ 2. 5.(목)

·전 형 일: 2026. 2. 6.(금) 오후 2시

www.kwangshin.ac.kr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